

CBS미션

mission

CBS는 세상과 교회를 잇는 다리입니다

발행 CBS기독교방송
발행인 한용길
주소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전화 02-2650-7000 (대표)
02-2650-7004 (후원안내)

www.cbs.co.kr

18호

2019. 05

이단·사이비 OUT!

특별모금방송

CBS 주요프로그램 소개

울포원 / 어른성경학교 / 다음세움

CBSJOY4U 콘서트 미주공연

해외방송 소식

3.1운동 100주년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지역본부 소식

일본순교지순례

CBS 시네마 소개
천로역정

위대한 기독교 고전 존 번연의 천로역정!

2019년, 극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



Information

- 원제 : The Pilgrim's Progress(2019)
- 감독 : 로버트 페르난데스
- 장르 : 애니메이션, 드라마, 가족
- 러닝타임 : 113분
- 수입 : (재)CBS
- 북미개봉 : 2019년 4월 18일
(*개봉일 스크린 당 티켓판매수의 1위)
- 국내개봉 : 2019년 6월 13일 예정
- 등급 : 전체관람가 예정

Synopsis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 당신의 이름은 크리스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 어느 날 발견한 한 권의 책에서 천국도시의 존재를 알게 된다. 웬지 모르게 책에서 눈을 떼 수 없던 그는 결국,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을 찾아 모두가 만류하는 무모한 모험을 시작하게 되는데...

“뛰어! 크리스천, 천국에 닿을 때 까지!”



원작, 존 번연의 '천로역정'

익히 잘 알려져 있듯, '천로역정'은 영국의 목사이자 작가인 존 번연의 걸작,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문학작품이다. 동시에 중요한 믿음의 책이며,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되고 읽힌 책이다. 존 번연은 옥중에서 자신의 믿음을 나누기 위해 이 책을 완성하였는데, 그의 강력한 이야기는 은유와 비유로서 우리에게 믿음의 여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어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의 길을 지켜내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2019년의 '천로역정', 영화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단순한 소설 '천로역정'이 아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역경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지화'한 고품질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제작자 스티븐 클레이(Steven Cleary)와 로버트 페르난데즈(Robert Fernandez)는 문화선교에 오랫동안 헌신해오며, 영화의 영향력을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수억원 이상을 수년에 걸쳐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가 밝힌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

서> 제작의 최종적 목표는 전 세계의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다.

수년째 국내에서 영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CBS에게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작품이 연결된 것부터 시작해 계약의 진행 단계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양 사(社)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신 '문화 선교'에 대한 비전을 확인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아주 특별한 한 가지 미션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북한 선교'이다. 놀랍게도 오랫동안 '북한 선교'에 앞장서 왔던 CBS에게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북미 배급사 Vision Video가 먼저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제작한 영화가 꼭 북한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소망을 전했다. 놀라운 이야기였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영화가 전달되어야만 했던 것처럼,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북한선교를 위한 한 국어 번역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지난 4월 18일 부활절 기간에 맞추어 처음 북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샤잠>, <캡틴마블>과 같은 흥행한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제치고 스크린 당 티켓 판매순위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한 영화의 선교적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 중요한 지표이다.



이제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한국교회와 다음세대,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영화는 극장을 넘어 각 지역과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복음에 굶주려 있는 우리 민족에게 ‘산소망’을 전해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할 신앙의 유산!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잃어가고 있다!”, “다음세대가 살아야 한국 교회가 산다!”

이와 같은 외침, 비탄 하루 이틀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점점 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해지고 실질적인 성공, 자아성취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다음세대로부터 한국교회가 외면받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와 신학 교수 등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2019 목회 키워드’, ‘한국 교계의 문제’로 ‘다음세대’를 압도적 1위로 꼽았다. 또한, 일반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회에서 제공받기 원하는 것’을 질문했을 때,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프로그램’이라는 답변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전히 ‘다음세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화두이다.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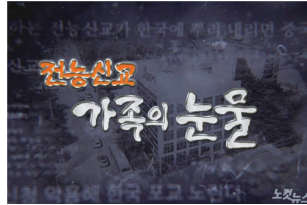
수 있는 원작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번역했다. 그러나 단순한 애니메이션은 아니다. 존 번연이 다양한 비유와 은유를 사용해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를 놓치지 않았다.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 살아가는 순례자의 생애를 수려한 영상미로 표현하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있다.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고비마다, 순간마다 떠오를 인생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더불어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온 기독교인에게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볼 계기가 되어줄 것이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안내해줄 지침서가 될 것이다.

날이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다음세대와의 접점을 마련하는 것조차 어려워졌지만, CBS시네마가 애니메이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통해 그 대안을 제시 할 것이다.

이렇게 동참해 주세요!

1. 극장에서 함께해 주세요. 극장 단체관람을 통해 온 성도와 함께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관람해 주세요.
2. 영화 개봉소식을 알려주세요. 교회광고, SNS,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 기독교영화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세요.
3. 기도해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온전히 그의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로 동참해주세요.
4. 단체관람은 02-2650-7942로 전화주세요

이단·사이비 OUT!



신천지 등 이단으로 부터 한국교회 수호를 위한 CBS의 노력은 계속된다!

한국교회 전면에서 '신천지 OUT!' 캠페인을 전개하며 이단 및 사이비 종교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해 온 CBS.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성을 알리며 이들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려는 CBS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를 공격해온 신천지에 대해 CBS는 수년 동안 신천지의 실체와 그에 미혹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힘써왔다.

신천지 집단, CBS 상대로 각종 소송 벌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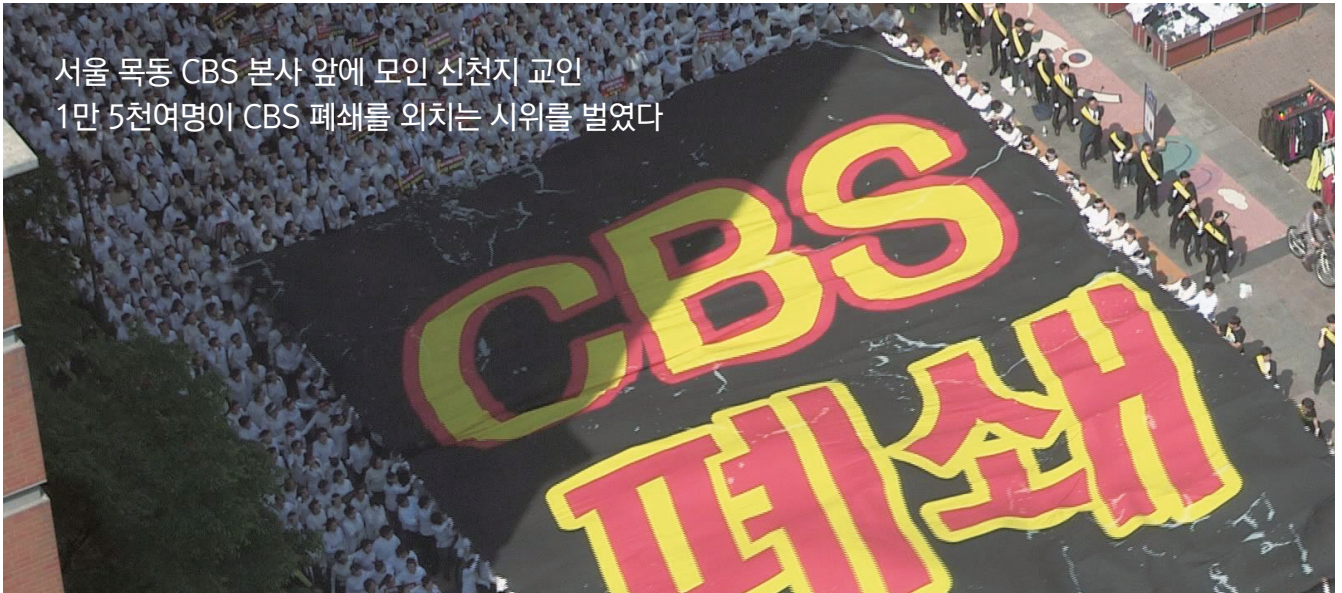
이러한 CBS의 활동을 막기 위해 신천지 집단은 30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각종 소송 전을 펼쳤으며, 5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들을 동원해 서울 본사를 비롯한 전국 CBS 앞에서 'CBS OUT!'을 외치며 위협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 길거리에서 CBS 비방 유인물을 나눠주는가 하면 대형버스에 CBS를 폄훼하는 문구를 적어 시내를 누비기도 했다.

CBS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신천지 집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 신천지 행사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출될 뻔 했던 일을 막아냈다. 또, 신천지 위장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을 앞세워 세계 평화 행사라는 명목으로 잠실주경기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던 것을 보도를 통해 행사를 축소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최근에는 신천지가 평화, 인권, 봉사, 청소년단체 등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로 위장해 사람들을 미혹하며 기성 성도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과 해외로까지 포교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CBS는 수험생과 대학 새내기 등 청년들을 노리는 신천지 포교수법을 알려 피해예방을 돕고, '신천지봉사단의 영등포 전통시장 살리기 행사', '가평 신천지 평화박물관 건립시도', '과천시 신천지 업무시설 건축시도' 등을 보도해 사회 속으로 파고 드는 신천지의 시도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CBS에 위해를 가하려한 소송에서도 CBS는



서울 목동 CBS 본사 앞에 모인 신천지 교인
1만 5천여명이 CBS 폐쇄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당당히 승소해 CBS의 보도가 정당함을 입증했다. 소송 액수가 가장 컸던 CBS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경우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다툼에서 법적 쟁점 30가지 가운데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반론을 인정했고, 정정보도 청구 역시 단 1건 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CBS는 완승을 거뒀다.

CBS, 중국서 건너온 전능신교 실체 파헤쳐

CBS는 신천지집단 이외에도 다른 이단들의 활동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한 다양한 보도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중국 정부가 사교(邪教)로 지정하고 한국의 주요 교단들도 이단으로 규정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일명 '전능신교'에 대해 8부작의 기획보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별 다큐멘터리 '전능신교 가족의 눈물'도 제작 방영했다.

전능신교 신도 2천여 명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에 들어와 난민신청을 하고 국내 포교에 나선 가운데, 전능신교의 실체를 알리고 전능신교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처방안을 모색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교계뉴스부는 '전능신교'의 발원지인 중국 현지로 들어가 관련 내용을 집중 취재했다. 전능신교의 태동에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그들의 교리내용, 그리고 각종 피해 사례와 전능신교에 빠지면서 집을 나간 가족들을 되찾기 위해 한국을 찾은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겨운 사연들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카메라와

글에 담았다.

특히 창시자 조유산의 하얼빈 생가를 비롯해 전능신교의 활동이 본격화 된 허난성 정조우, 그리고 실질적 세력이 가장 강하다는 허베이성 바오딩을 현지 취재하여 시청자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또 언론사 최초로 조유산의 전 아내와 친동생을 인터뷰 하는 등 전능신교 탈퇴자 및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전능신교의 실체를 파헤쳤다.

JMS 소속 목회자들 기업사냥 나선 정황 포착

이밖에도 한국교회 주요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소속 목회자들이 한 코스닥 상장사의 경영진으로 참여해 이른바 기업 사냥에 나선 정황을 포착해 보도하는 등 교계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를 고발했다.

이단·사이비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자 우리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단에 빠진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우리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과 책임이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에 CBS는 교회와 사회가 이단·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분별력을 길러 이들로부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CBS는 앞으로도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의 기독교계 신흥종교운동과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한 실체를 파헤치고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CBS 방송선교사로
동참하여 생명을 살리는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

2019 CBS 신입사원 교육 중

CBS는 1954년 설립 이후 피폐해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도록 한국교회 및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성장해 왔다. 이를 위해 매년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을 진행하며 찬양과 말씀의 은혜로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CBS의 사명인 방송선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CBS는 계속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 주여 나를 보내소서’를 3부작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오는 6월에 방송되는 모금방송은, 1부 <세계선교 CBS>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 현장에서 지금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만나 방송 이후의 변화들을 돌아보고 CBS 방송선교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2부 <동역자 CBS>에서는 ‘수호천사’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됐던 사역자들의 방송 후 뒷이야기를 소개하며, 방송을 통해 사역자들의 사연이 나간 후 이어진 후원자들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을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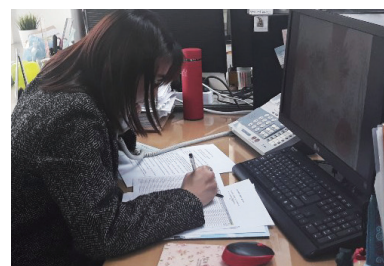
마지막 3부 <전파선교 CBS>는 전 국민 중 기독교인 비율이 1% 밖에 되지 않는 척박한 영적 불모지 캄보디아에 세운 ‘JOY4U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설립 이야기를 다루며 CBS를 통해 복음전파의 지경을 넓혀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개한다.

CBS는 선교사와 교회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곳에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

해 기도와 물질로 방송선교에 동참해주신 모든 후원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CBS는 하나님 나라가 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방송선교로 최선을 다할 것이다. 6월에 방송되는 CBS 후원 특별모금방송을 많이 시청해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한다.

신입사원

CBS의 신입사원을 소개합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5월, CBS를 향한 열정과 패기로 힘찬 새 출발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올해 첫 신입사원들

이다. 약 4주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전국 각 지역에 배치된 신입사원들은 첫걸음을 내딛기에 앞서 전화 방문으로 CBS 방송선교사 분들과 중보기도를 나누고 감사 인사를 전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방송선교의 사명으로 뭉친 16명의 신입사원들의 각오를 들어보았다.

“CBS 후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후원하고, CBS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도 제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하

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는 방송선교임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CBS ICT R&D 정은영

“과부의 두 랍 돈처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을 내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하고 뭉클했습니다. CBS의 주된 사명 중 하나가 말씀을 전파하는 방송선교인 만큼 후원자들과 CBS 간의 연결고리가 더욱 끈끈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십시일반 모아주시는 정성이 선한 영향력으로 쓰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CBS 기자 이은지

후원자님 중 연세가 80세가 되셨다며 CBS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과, 매월 2만원 밖에 안 되는 작은 금액인데 직접 전화까지 주시니 감사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CBS라면 믿고 후원해야죠!”라고 말씀하신 후원자님께 감사하며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강원 CBS 방송경영 이석훈

“CBS의 방송선교 사역의 소중함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여러 후원자분들과 통화한 것은 너무도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 CBS 방송기술 이현민

세상 속으로 들어가 CBS의 사명을 감당할 16명의 신입사원들. CBS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는 귀한 일꾼이 되길 축복합니다.

후원자스토리

다음세대를 지키는 멋쟁이 신사,
정갑열 장로

푸른 중절모의 멋쟁이 신사, 정갑열 장로님은 CBS의 방송선교사입니다. 장로님은 세 아들의 이름으로 후원하기 위해 CBS를 방문했다.

“자녀들도 나처럼 죽을 때까지 선교를 위해 CBS에 후



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첫 단추를 꿰어왔다”라고 말씀했다. 아버지의 부재로 외로운 유년시절을 보낸 장로님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적 유산을 물려줬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1년에 성경 1독을 마치며, 매년 성탄절에 새 성경책을 선물했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이미 신앙 안에서 훌륭하게 장성한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기를 멈추지 않은 장로님. 어릴 적 쌓아온 신앙의 유산을 다음세대에게 전하고자 한 장로님의 섬김과 헌신이 복음의 열매로 이어지길 기도한다.

CBS 선교후원 안내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CBS는 한국교회와 방송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CBS의 방송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1.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방송선교 사역을 위해
2. 이단, 사이비 척결을 통한 한국교회와 진리 수호를 위해
3. 인생을 바꾸는 문화선교 사역(시네마, JOY4U 등)을 위해
4. 한국교회 미래를 세우는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후원문의전화	02-2650-7004
후원홈페이지	love.cbs.co.kr
이메일	mission@cbs.co.kr

후원계좌

우리은행	212-001999-13-045
국민은행	802-25-0009-268
농협은행	358-17-000404
예금주	(재)CBS

ARS : 060-808-5004(한 통화 5천원)

'설교로 하나되는 시간' -

CBS 올포원



해답 없는 인생,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묻고 답하다!

만약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다면 무슨 해답을 구할까? 삶과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에 목말라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처럼 다가가는 **CBS 올포원**이 회를 거듭할수록 시청자들과 친밀하게 호흡하고 있다. 매회 한 가지 신앙적인 주제에 대해 설교자의 설교 후에 남는 물음들을 그 자리에서 직접 물어가며 답을 구한다는 점은 평소 신앙적인 궁금증이 많았던 시청자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았다.

모두가 가장 궁금해 하는 신앙의 본질적인 질문,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알면서도 실제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고민들로 함께하는 **CBS 올포원**은 앞으로도 더욱 폭넓은 주제, 깊이 있는 설교, 즐거운 문답토크를 통해 신앙의 적용점들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성경66권을 주제로 하는 '처음 듣는 성경' 시리즈는 벌써부터 많은 호응을 얻으며 다음 주제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어른성경학교

교회야~놀자~어른성경학교!

'어른'을 위한 '성경학교' **어른성경학교**는 즐겁고 행복한 교회의 추억을 되살려 순수한 신앙의 힘을 회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로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 개그우먼 김효진, 가수 R.ef 출신 성대현, 개그맨 정범균,

벤엘교회 박태남 목사, CBS 서연미 아나운서의 고정 출연자와 인기 가수에서 목회자 사모로 변신한 자두, 4차원 개그맨 김수용, 모델 한현민, 헬스 트레이너 아놀드홍, 영어 강사 이시원, 기타리스트 함춘호 등 다양한 직업군의 셀럽들이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아프고 지친 사람들이 참 많다. 아무리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어도 현실의 어려움에서 자유로워지지 못하는 까닭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할 것이다. **어른성경학교**가 일상의 노고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크리스천들에게 조금의 위로라도 줄 수 있다면 더한 기쁨이 없을 것이다.

다음세움 다음세대에게 예배를!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기독동아리

2015년 다음세대 프로젝트 기획을 시작으로 2016년 「성경암송대회 **요절복통**」, 2017년 「**암송성경1189**(성경전체를 427교회 10,900명이 참가하여 100시간동안 성경전체를 암송)」을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 연중캠페인 '다음세대를 생각합니다'와 함께 CBS기독동아리 사역 '다음세대 100만, 리얼크리스천 만들기'를 시작했다. 작은 기도모임부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는 자율동아리, 그리고 정규 수업시간에 말씀과 찬양을 드리는 창체동아리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워나가며 복음을 접하지 못한 다음세대가 없도록 복음 전파 사역에 매진하고 있다.

CBS기독동아리 사역은 무엇보다 전하는 사역자가 중요해서 2018년 '제1회 청소년 사역자 양성과정'을 개최했다. 다음세대에게 관심이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참여하여 철저하게 검증하고 교육을 받아 27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고 학교에 건강한 사역자로 파송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2019년 2회~3회 청소년 사역자 양성과정과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어른성경학교' 어른성경학교에 출연중인 (앞줄 좌측부터) 진행자 벤엘교회 박태남 목사, 작곡가 겸 방송인 주영훈, 개그우먼 김효진, 방송인 성태현, 모델 한현민, (뒷줄) 개그맨 정범균, CBS 서연미 아나운서

많은 학생들이 CBS방송국을 견학하고 방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 미래의 다양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양화진·인천 선교유적지 등 이 땅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과 초기 기독교 문화를 소개하는 유익한 체험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CBS시네마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독교영화 관람 또한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귀중한 도구가 되고 있다.

브 육아 교육 중인 부모님과 아이 사례는 부모세움 프로그램에 갖가지 다양한 형식으로 담을 것이다.

어김없이 찾아온 하루라는 시작 참 행복합니다 행복다이어리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 격려를 전해줄 수 있는 감동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행복다이어리'가 시청자들에게 찾아간다.



다음세대를 세우는
부모세움

요즈음 특강 프로그램은 설명 위주의 강의보다 시청각 자료를 첨가해 전달력과 이해력을 높이는 강의 프로그램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부모세움'은 봄 개편을 맞아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우선 강의 진행을 돕는 크리스천 방송인 패널 2명을 출연시켰다. 그리고 이번 개편된 부모세움에는 부모님들의 경험담을 인터뷰했다. 제작자가 실제 토브 육아 교육현장도 방문해 인터뷰를 촬영했다. 부모님들의 회사, 교회의 상황은 다양했고 육아 사례도 다 달랐다. 참여하는 부모님들의 믿음은 깊었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의지 또한 굳건했다.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프로그램에 담고 싶은 내용이 많아졌다. 현재 토

삶의 아름다움, 우정과 사랑의 소중함 등 행복과 희망을 한 편의 짧은 칼럼에 녹여 크리스천에서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진한 감동과 지혜를 던져줄 것이다.

행복다이어리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크리스천 리더들과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들을 찾아 참신한 화면 구성과 이전에 접할 수 없었던 영상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

행복다이어리는 우리의 삶 속에 활력으로 가득 채우고 매일 열정을 상기하면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감동 메시지가자 함께하는 세상 만드는 인생지침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CBS 조이 포유(Joy4U) 콘서트 미국



10박 11일 일정의 미주지역 조이포유콘서트

10박 11일 일정의 조이포유콘서트 미국 순회 일정이 시작되었다. 조이포유콘서트는 지난 2년여 전국을 순회하며 100회 이상 진행되었고 CMS(정기후원)를 통한 방송선교사 결연과 조이포유 채널 홍보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전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채널로 접속해 들을 수 있는 조이포유의 특성에 맞춰 미주 지역에 콘서트를 해보자는 이야기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되어 연초부터 구체적으로 추진되었고 4월 19일 출발해 30일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구성되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1회씩 아틀란타에서 1회, LA에서 2회의 콘서트 일정이 결정되었고 출연진도 최인혁, 송정미라는 최고의 CCM 가수와 지난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교회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복화술사 안재우소장이 캐스팅 되었다.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첫 공연

이번 공연을 통해 알게 된 점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우리 교회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예배 인원이 부쩍 줄었다고 걱정하고 있는데 미국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 이외에 인원을 모으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첫 공연을 한 뉴욕 프라

미스 교회는 재적 3000여명의 교회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 공연 때 400여명 밖에 모이지 않아 당황했다. 이런 모습은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평균 400여명 내외였다. 그것도 수요일 금요일에 이정도 모인 것은 정말 많이 모인 것이라 하니 아쉬운 것은 최고의 콘텐츠를 가지고 갔는데 좀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뉴욕프라미스교회와 뉴저지초대교회 공연까지 목감기와 후두염 증세에서 회복되지 못했던 송정미 사모님의 정성을 다한 찬양은 오히려 더 많은 감동을 주었고 최인혁 전도사님의 힘차고 진솔한 찬

양과 안재우소장님의 짝여사와 함께 웃고 울리는 복화술 무대는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었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와 LA새생명비전교회의 공연은 더욱 완성된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정 소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무대는 4월27일 LA새누리교회에서 열린 CBS아메리카 개국 축하공연. 6~70년대 입사한 CBS 선배들의 열정으로 개국한 **CBS아메리카**는 미국 사회에서 CBS의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갈 소중한 존재였다. 시작하는 모습은 비록 미약해 보일지라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만들어가는 그 앞길은 무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짧은 기간 총횡으로 이동하며 개최된 무리한 일정의 공연이었지만 시차적응할 틈도 없이 오히려 더 큰 감동과 감사의 일정이었음을 고백한다. 매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일정. 항상 그 곳에 예비하신 손길들이 함께 하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처음 시도하는 미국에서의 방송선교사 모집결연 과정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단초를 만들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어느 곳에서나 **CBS** 그리고 24시간 찬양이 흘러나오는 **JOY4U**가 항상 함께 있음을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결과였음을 자부한다.

WCBA총회

WCBA 총회서 회장에 한용길 사장,
이사장에 이영훈 목사 연임 결정

세계한인기독교방송협회(WCBA)가 미국 아틀란타에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4월 24일 제24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CBS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기독교 방송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명을 재확인하고 네트워크 연대를 강화했다. 회원사 31곳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WCBA의 제 24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인 CBS 한용길 사장과 이사장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연임을 결정했고,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

한용길 CBS 사장은 “기독교복음방송은 하나님의 본질인 말씀을 더욱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WCBA의 목적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CBS 아메리카 TV 시작

한편, 미국 남가주 70만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 'CBS 아메리카 TV' 방송이 본격 시작됐다. 지난 3월부터 채널 18.7을 통해 한국의 CBS TV 프로그램과 미주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설교, 자체 제작 프로그램 등을 미국 남가주 지역에 송출하고 있다.

CBS 아메리카 TV는 ‘어른 성경학교’와 ‘올포원’ 등 한국 CBS TV의 다양한 콘텐츠를 교민들에게 제공해 한국교회와 고국의 소식을 전하고, 미주 한인교회의 활동과 이슈들을 교민 사회와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CBS 아메리카 TV 개국으로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세대들도 한국 CBS의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CBS 아메리카 TV 설립을 계기로 LA를 비롯해 시카고, 달라스, 아틀란타 등 4개 지역에 CBS TV프로그램이 송출된다.

특히 LA지역은 CBS 아메리카 TV(대표 김광수, 석송)를 통해



서 CBS TV 프로그램 전체가 송출된다. 또 시카고지역은 MCTV(대표 김왕기)를, 달라스지역은 JCBS(대표 김재식)를 통해서 CBS TV 프로그램 전체가 송출된다. 아틀란타지역도 KTN(대표 최은숙)을 통해 CBS TV의 프로그램 일부가 송출된다.

CBS 라디오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한인라디오방송사도 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에 방송권역을 두고 있는 뉴욕라디오코리아(대표 권영대)에서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비롯해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CBS라디오의 대표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해 미주복음방송(대표 이영선), 시카고K라디오(대표 조열), 달라스K라디오(대표 김민정), 아틀란타라디오코리아(대표 박건권) 등 9개 한인라디오방송사들이 CBS 라디오의 프로그램을 공급받거나 협의 중에 있다.

CBS 아메리카 TV 개국 감사예배 드려

한편, CBS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4월 27일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LA지역 한인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CBS 아메리카 TV의 개국 감사예배와 축하공연을 드렸다. CBS 아메리카 TV 김광수 대표는 “방송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할뿐만 아니라 한인사회를 하나로 묶는 데 가교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국예배를 축하하기 위한 작은 콘서트도 열려 의미를 더했다.





- CBS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제작記
- 연출, CBS 반태경PD

CBS가 제작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

'북간도의 십자가' 8월에 개봉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서두에 명기된 두 가지 사건, 즉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관통하는 봄을 보냈다. 대통령 직속의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까지 꾸려지는 등 모든 기관·단체가 두 가지 사건의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해 분주했던 시기, 한국교회의 공기관 CBS 역시 '3.1운동 정신의 과거(역사)와 오늘(현재적 의미),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할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앞에 선보였다. 신년 특집으로 공개했던 2부작 다큐멘터리 <북간도의 십자가>가 그것이다.

'기독교방송'의 3.1운동 기념 다큐멘터리에 누군가는 "인구의 1.5%도 안됐던 기독교가 3.1운동을 선도했고..." 같은 내용을 기대했음지도 모른다. 다른 누군가는 1등급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서훈받으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3.1운동의 아이콘' 유관순 열사 등 기독교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CBS가 주목한 지점은 달랐다. 현재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일대인 '북간도' 지역에서 펼쳐졌던 항일 독립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직접 행동·무장 투쟁으

로 요약되는 북간도의 항일 독립 운동은 당시 북간도 이민 사회에 널리 퍼졌던 기독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경할 북간도의 기독교 민족주의 운동을 다시 환기시키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CBS만이 도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라고 감히 자부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추락할 대로 추락한 한국교회에 적지 않은 공명(共鳴)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북간도를 1년동안 추적

한국교회의 후원과 기도 속에 1년여의 기간 동안 추적한 스토리는 참 드라마틱했다. 국권이 상실되던 시기에 북간도로 집단 이주한 지식인들이 민족을 위해 계획된 공동체를 만들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독교로 집단 개종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활약한, 우리에게만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이동휘 전도사'의 역할도 인상적이었다. 이후 동북 변경 지역의 실학자·무관 가문 출신이라는 이주 지도자들의 태생적 배경과, 당시 북간도를 관할하던 캐나다 선교부의 물밑 지원 등으로 북간도의 민족주의 운동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양태로 전개된다. 3.1운동 이후 펼쳐진 최대 규모의 만세 시위였던 용정 3.13 만세 운동, 그리고 모두가 익히 아는 봉오동·청산리 전투 등 북간도의 특별한 항일 운동의 기저(基底)엔 이런 기독교인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3.1운동과 북간도라는 다소 동떨어진듯한 주제를 하나로 이으며 화제를 모았던 <북간도의 십자가>는 3.1절 1~2부 연속 편성을 마지막으로 TV 방송은 일단락되었다. '돌무더기'와 '풀' 밖에 남아있지 않던 북간도 유적지들을 영상으로 담아내며 어떻게 이 작품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여러 기관·교회·동역자들의 참여와 헌신으로 한국교회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작품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다. 이제 CBS는 이 다큐멘터를 한국교회 밖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소천한 다큐멘터리 주인공 故 문동환 목사의 마지막 모습과 미공개 육성 등을 추가해 다큐멘터리 영화로 공개하는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전국 극장에서 공개될 예정인 다큐멘터리 영화 <북간도의 십자가>는 오는 8월 광복절 즈음에 개봉된다.

울산 CBS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JOY4U 콘서트' 성황리 개최



울산CBS는 4월 7일(주일) 울산 호계교회(담임 김병문 목사)에서 '해바라기와 함께하는 JOY4U 콘서트'를 은혜롭게 개최했다. 200여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콘서트에서 해바라기는 '행복을 주는 사람'과 '내마음의 보석상자', '시편 23편' 등 히트곡을 열창해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진 이단 신천지 특강에서는 CBS 윤기화 선교위원이 이단 신천지의 실태와 포교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 CBS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4월 23일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뮤지컬디바 홍지민과 함께하는 봄'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경남 CBS 경남CBS의 성경공부 프로그램 CBS성경교실



경남CBS에는 라디오버전의 **성서학당**이 있다. 매주 주일 오후 4시 5분부터 5시까지 방송되는 **CBS성경교실**이다. 2018년 11월 11일에 첫 방송을 내보낸 이 프로그램은 경남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대화하며 성경을 공부하는 형식이다. 강승구 목사(남산교회)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일곱 가지 표적'을 주제로 첫 강사가 되었으며, 지금은 최영삼 목사(새창원교회)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다. 참여하는 목회자들마다 "신선한 기획이다. 동료 목회자들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며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있다. 참여하는 성도들도 처음에는 어색하더니 "이제는 성경에 조금씩 눈을 뜨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부산 CBS 부산CBS 창립 60돌 다양한 섬김 이어져



'제1회 부산CBS배 크리스천 탁구대회'가 4월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부산·울산·경남지역 목회자와 성도, 가족 등 300여명이 참여하여 남녀 통합 단·복식, 목회자리그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부산CBS 정민기 본부장은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부산지역 탁구대회의 대명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 CBS 3·1운동 100주년 기념 제주연합예배



3·1운동에 앞장선 제주지역 기독교의 역사적인 운동을 뮤지컬로 표현한 작품이 제주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공연됐다. 제주도기독교교단협의회(회장 남수은목사)는 지난 2월 27일 제주성안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합예배와 함께 뮤지컬 '그날'을 처음으로 공연했다. 뮤지컬 '그날'은 일제강점기 어두웠던 시절 제주에서 만세운동이 처음 이뤄진 조천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있었던 항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작품에 출연한 배우들은 도내 성도와 목회자들로 구성됐으며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포항 CBS 복화술과 함께하는 CBS 찬양콘서트



포항CBS는 3월 7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국내 최고의 복화술사이자 2018 다니엘기도회 강사인 안재우 소장과 싱어송라이터 김복유 밴드, 제1회 CCM스타 금상수상 찬양사역자 이지혜가 출연해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CCM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포항 지진피해 등으로 상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다.

대구 CBS 대구CBS 운영이사회 정기총회 운영이사장 이·취임 예배



대구CBS가 4월 12일 대명교회에서 운영이사회 정기총회와 운영이사장 이·취임식을 열고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를 운영이사장으로 선임했다. 장 목사는 취임사에서 "사회적으로 기독교를 대변할 언론은 우리 CBS밖에 없다. 특별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고 한국 교회를 좀 먹고 있는 신천지에 대해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언론은 CBS밖에 없다"며 CBS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구CBS 감일근 본부장은 "신천지 등 이단에 맞서 한국 교회를 지키고 언론기관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진실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원영동 CBS 산불피해 지역교계 협력 힘써



지난 4월 4일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교회와 가옥, 사업장 등이 소실되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강원영동CBS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실시간 보도는 물론

각 지역 교회피해상황을 집계해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특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성, 속초지역 교회를 방문해 위로하고 후원교회, 기관 등을 연결해주었다.

지역의 한 목회자는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여준 강원영동CBS를 통해 기독교방송의 공공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5월에는 산불피해교회 목회자가 참여하는 CBS TV ‘새롭게 하소서’ 녹화와 노문환목사, 커피소년 등이 함께하는 위로콘서트 등을 진행, 완전한 복구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강원 CBS 사옥겸 선교센터 드디어 건축 시작



강원CBS 사옥 및 선교센터는 기독교선교센터,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군선교연합회 등 교계연합기관 사무실이 상주해 지역교계 허브 역할도 맡게 된다(9월 완

공예정). 사옥건축의 원동력은 성도 한 분 한 분의 귀한 헌금이다. 둘째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그 조의금을 건축을 위해 써 달라고 하신 어머니의 눈물, “CBS 방송이 북한과 중국까지 들리게 해 달라”며 찾아오신 노(老)장로님, 결혼 예물을 팔아 건축 헌금을 마련했다는 가정주부. 오랜 병수발 감사선물로 남편에게 받은 금목걸이를 가져오신 권사님, 학원 봉고차를 운전하며 받은 월급 100만원 중 50만원을 헌송하며 너무 작다고 미안해하시는 장로님, 신도가 6명인 자그마한 교회에서 10만원씩 모은 60만원... 꼬깃꼬깃 접어 두었던 지폐 한 장, 눈물어린 헌금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려는 이 분들의 정성과 기도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 그 마음 받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사옥을 건축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 선교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

전남 CBS 2019 첫 JOY4U콘서트 개최 "성도들 찬양으로 한마음"

지난 2월 24일, 주일, 여수성광교회에서 2019년 첫 JOY4U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에는 동방현주, 유은성, 최인혁 찬양사역자가 함께했으며 많은 성도들이 전남CBS 방송선교사를 약정해주었다. 또한 4월 24일, 순천중앙교회는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 찬양사역자 김형미씨와 함께 했다. 부활절 주간, 기쁨의 찬양들로 수요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찬양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었다며 순천강남중앙교회 JOY4U콘서트를 통해 방송선교의 아름다운 행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전북 CBS 부활절 기념 사랑나눔 특별 생방송



전북CBS가 부활절 기념 사랑나눔 특별모금 생방송을 성황리에 마쳤다. 4월22일 방송에는 가스폭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명성교회 박기환 목사와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예순사랑나눔센터 김도경 목사, 예사봉사단 송병희 장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명성교회 당시 상황을 비롯해 급식소 운영 상황을 청취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전북CBS 이열범 본부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적극 나서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CBS 광주 음악FM 개국기념 예배 및 축하연 & 콘서트



광주CBS 음악FM 개국기념행사가 지난 3월 2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3천여명의 광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예배와 축하연, 만찬, 축하 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광주다일교회 김의신 목사의 인도로 진행됐으며 광천교회 이양수 목사가 대표 기도를 일곡중앙교회 정연수 목사가 말씀을 전달했다. 2부 축하연에서는 한용길 CBS 사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용섭 광주시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달했다. 이날 축하 콘서트는 CBS 음악 FM에서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진행하는 탤런트 김현주의 사회로 진행됐다.

대전 CBS 제10·11대 운영이사장 이·취임 예배



대전CBS 제10·11대 운영이사장 이·취임 예배가 5월 3일(금) 열렸다. 신임 이사장 안승철 감독(힐탑교회)은 "대전CBS가 기독교계의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구성한 대전CBS 지역 운영이사회들과

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며 1부 예배는 김철민 목사(대전제일교회)의 사회와 백용현 목사(한빛교회)의 기도, 이덕훈 한남대 총장의 성경봉독, 구동태 감독(합성감리교회)의 말씀선포, 표용은 감독(서대문감리교회)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 이·취임식은 이임 이기복 감독에 대한 공로패 증정을 시작으로 축사에는 허태정 대전시장, 김중천 대전시의회의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나소열 충남도문화체육복지차,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신용현 국회의원 등 여러 기관장과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복음화율 0.3%

“이제 우리가 선교해야 할 땅”

일본 순교지 순례

2019년 7월 1일(월) ~ 5일(금)

부산-시모노세키-후쿠오카-사세보-오무라-히라도



이 시대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은혜와 도전이 될 것입니다



동방의 산티아고 - 오무라 침묵의 순례길



스즈타감옥



처자 이별 눈물바위



호쿠바로 처형장



마쓰우라 박물관



사원이 보이는 풍경



야이자 화형장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믿음을 지킨 나가사키 순교지

전 세대가 함께 떠나는 믿음의 여정



| 300여년 동안 전해진 위대한 유산 |

천로역정

천국을 찾아서



단체관람 문의 :
02-2650-7942

BASED ON JOHN BUNYAN'S EPIC MASTERPIECE

FATHOM EVENTS PRESENTS A CAT IN THE HAT PRODUCTION IN ASSOCIATION WITH HERALD ENTERTAINMENT & AMERICAN FAMILY ASSOCIATION A STEVE CLEARY FILM "THE PILGRIM'S PROGRESS"
JOHN RHYS-DAVIES ZEN PHOEBE KRISTIAN GATLEY MICHAEL DOOLEY CHRIS JUNG PHIL BRAATEN STEVE CLEARY STEVE CLEARY CHARLES RAINES ROBERT FERNANDEZ
THIS FILM IS NOT RATED

6월, 전국 극장 대개봉



수입/배급

CBS